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www.kipi.or.kr)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하는 '2004년 제6회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는 재산, 기술은 힘, 정보는 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허정보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특허정보의 품질 고

급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품질 표준과 관리표준을 완성해왔다. 또한 품질경영 관련 분임조 및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경영 효과분석, 제안제도의 실시, 품질경영 교육추진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전 업무의 시스템화 및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이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객만족 측면에서는 '고객을 접하는 15초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MOT(Moment of Truth)를 실천



'2004년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에서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유영기 한국특허정보원장.

하기 위하여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경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상담관련 부서 및 콜센터에 대해서 서비스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품질경영의 실천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산업계 및 학계에 양질의 특허정보를 보급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여타 기관으로 확산되어 미려하나마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무료특허정보검색 사이트인 KIPRIS(www.kipris.or.kr) 위탁운영,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www.forx.org), IPC 분류사업, 영문초록사업 등 특허기술정보 제공 및 재가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정보를 활

용하여 정책입안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허정보분석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양질의 특허정보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국제적 품질인증 ISO 9001 인증관련 업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품질 혁신을 통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다.

웰빙 붐과 함께 건강양말이 뜨고 있다

최근 웰빙붐과 함께 기존의 양말에 건강기능이 부가된 소위 건강양말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양말은 일반 양말에 기능성 성분을 첨가하거나 지압봉을 부착하기도 하고 통풍구나 코팅층을 부가하는 등의 가공을 더한 양말을 지칭하는 것.

건강양말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성 성분이 첨가된 양말은 원적외선 방사 물질, 자성 물질, 약용 성분 등의 유용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양말에 코팅 또는 침투시

킨 것으로서 항균, 소취, 생리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 사용되는 유용성분들은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숯, 옥, 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로폴리스, 키토산 등이 이용되고 있다.

건강양말과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92년부터 2003년까지 특허출원 건수는 총 86건이며, 그중 85건이 내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내국인에 의한 기술 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건강양말의 대동기

에 해당하는 '92~'94의 3년간 2건이 출원되었으나 '98~'00에 35건, '01~'03에는 44건을 기록하여 90년대 후반 이후에 이 분야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의 감각이 둔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당뇨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탄력성, 통풍성이 보강되고 혈액순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한 당뇨병 환자용 양말이 업계에서 개발 중에 있는 등 특정 질병과 관련된 의료용 양말의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육성자금 1조2천억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특별경영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의 7천1백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요건을 완화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내수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개선안'을 확

정,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특별경영자금 2천억원을 새로 편성하여 대출금리는 현행보다 0.35%~0.45% 포인트 낮췄고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된다. 신용보증 대상기업 조건도 신용평점 50점 이상에서 40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외주가공제조업체도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고 특허출원 중인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에게는 운전자금 금리를 용자기간에 따라 0.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각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과학재단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공모

한국과학재단은 올해로써 4회째를 맞이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중 우수한 연구개발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포상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시상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 과학기술자 및 한국계 여성 과학자로 국내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라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걸쳐 이학부문, 공학부문, 진흥부문 등 부문별 1명의 여성과학기술자가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장관상 및 1천만원의 부상이 주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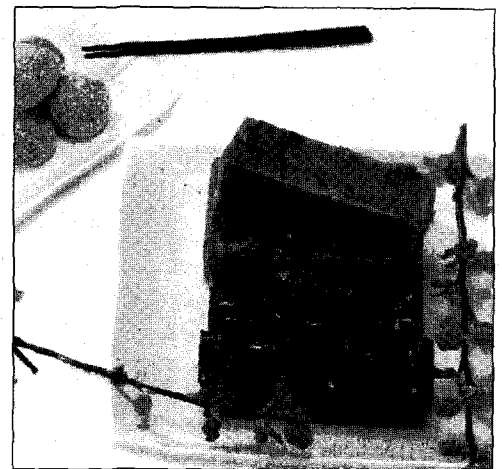
응모자는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 실적, 과학기술교육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활동 및 업적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소속기관장이나 과학기술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과학재단 기술진흥실에 제출해야 한다.

시상요강 및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042-869-6021).

(주)우리식품

'해초록 아이스 찰떡' 선보여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찰떡이 홈쇼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내산 찹쌀과 흑미, 현미찰떡 등 국내산 곡물과 밤, 호두, 대추, 잣 등 견과류를 주 재료로 떡을 빚어 영하 30°C 이하로 급냉시켜 한 개씩 개별 포장하여 배송되는 '해초록 아이스 찰떡'은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꺼내 상온에 20분, 전자렌지에 30초만 해동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고정관념의 탈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해초록 아이스 찰떡'. 농수산 TV홈쇼핑에 방영, 연속8주 판매 1위로 대박을 터트렸다.

(주)우리식품(대표 이두순)의 특허출원 기술이 적용되어 상온에서 1~2일이 지나도 쫄깃하며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지속되는 특장을 가진 '해초록 아이스 찰떡'은 농수산 TV 홈쇼핑에 방영, 재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 덕분에 첫 방송부터 연속 8주 동안 판매 1위로 대박을 터트렸다.

30년 기업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한 '해초록 아이스 찰떡'은 절편 형태로 날개 포장해 한입에 먹기 좋고 휴대하기 편해 떡의 차원을 한 단계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준 (주)우리식품 전무는 '자랑스러운 우리민족 지혜적인 떡을 현대화,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명으로 '해초록 아이스 찰떡'은 그 첫 단계'라며 '이 상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책 속의 이야기 13

「발명으로 꿈을 이룬 지구촌 여성들」 네팔의 어린 소녀에게 전달된 장비 상자

라자니 마토는 1969년 12월 12일 카트만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갈색 눈은 귀와 등 뒤로 땀이 내린 슬픈 검은 머리를 배경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다. 라자니는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라자니의 나라인 네팔은 가난하며 후진국이어서 현대적인 것들이 모두 필요한 곳이다. '네팔 학생으로서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우린 겨우 몇 권의 책밖에 볼 수 없다, 우린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습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도구조차 만져볼 수가 없으며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는 실험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보내주지 않고 책만 보내주고 있다'고 그 당시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래서 라자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교육용 실습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기본 물리를 실제 응용과 전지를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했다.

'우린 전기의 이런 모든 사용방법을 지시된 단위로 묶어 설명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몰랐으며 이 작업이 가능한 지조차 몰랐었다. 과학 선생님께 가서 이런 일들이 모두 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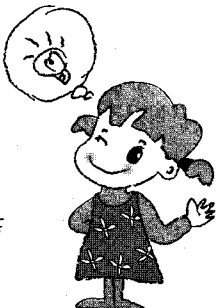
그녀는 또한 '우리가 만든 종합회로는 전력이나 자력과 연결된 많은 효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전도체와 분리체 저항을 확인하는 일, 즉 전기 자력의 의존성, 극, 감응 전기계량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사실 우리의 교육 모델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체 과학프로그램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대단히 실용적인 도구다'라고 말했다.

이 어린 소녀의 발명은 매우 감동적인 것이었다. 그 발명은 20×20인치로 된 단순한 서랍으로 그 안에는 쓰다버린 배너판, 성냥갑, 깨진 유리조각, 쇠막대, 철사조각들, 그리고 면뿔날과 같이 이상하거나 쓰고 버려진 것들로 구성된, 집에서 만든 혼합물이 들어 있었다. 이 회로를 만드는 데는 10달러도 채 들지 않았지만 수만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필수 교육비가 모자라는 국가들에서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네팔의 과학기술학회는 '84년 학교 대항 콘테스트에서 라자니와 그 친구들, 그리고 지도교사를 수상자로 선포하였고,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는 뜻에서 학회는 메달이나 상금보다 훨씬 실질적인 상품을 수여했다. 출전자 모두는 그들 생애 처음으로 훌륭하고 잘 만들어진 장비상자를 받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발명가로서 성공하게 된 것은 좋은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내가 언젠가는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시곤 했다. 에브라함 링컨 같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생애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 특히 퀴리부인 이야기는 내 눈을 뜨게 했다. 우리 모두에게 법이란 응용을 해서 배우려는 싸움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지용의 '향수' 상표권 되찾기 위한 취소 심판 열려



'향수'로 잘 알려진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군이 '향수'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시인 정지용의 고향 옥천군이 '향수' 상표를 되찾기 위해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냈다.

지난 9월 10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을 상징하는 '향수'를 쌀 등 각종 농산물 브랜드로 사용하기 위해 최근 특허법원에 상표권자인 해태제과식품을 상

대로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했다고 한다.

군은 해태제과식품이 '94년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향수' 상표를 출원, '96년 등록됐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종 사업자의 소송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취소 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

군 관계자는 '2년 전부터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무공해 쌀이 '향수' 브랜드로 출하되고 있는데다 해마다 '지용제' 등 기념행사로 정 시인과 '향수'를 알려온 만큼 '향수'의 상표권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군은 '향수' 상표권이 확보되면 쌀과 포도 등 농산물과 한우, 토기 등 지역 대표 상품에 이 브랜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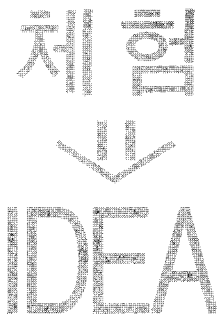
박세준 이안테크 대표 발명 노하우 공개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백여가지를 발명, 이중 30여가지를 실용화한 박세준 이안테크 대표가 자신의 노하우를 최근 출간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책 'www.초고속 성공키워드'를 통해서 공개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국내외 특허 정보를 검색한 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 대표는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발명했다고 덧붙이며 '특허의 90%가 사장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는 이론에 머문 발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발명은 체험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왕성한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분야에 대한 발명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세계 최초 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 시스템 구축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9월 16일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전세계 특허청 중 처음으로 온라인 문서교환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WIPO는 급격히 증가하는 국제특허 관련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지난 수년간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각국 특허청과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온라인 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한 첫 교환을 한국특허청과 수행하기를 희망하여 지난 8월까지 양 기관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부터 온라인 교환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WIPO가 정보화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특허청을 선택한 이유는 정보화 수준과 정보화에 대한 열의가 가장 높은 한국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교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WIPO는 온라인 시스템과의 연결을 한국특허청에서부터 세계 각국 특허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난 9월 말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 총회 보고 자료에 한국특허청과의 온라인 문서 교환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④

특허권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한다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屬地主義)원칙에 의하여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즉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국내 중소기업 S사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 S사(社)는 압축포장용기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비투자를 하는 한편,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A사(社)로부터 국내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받았다.

양사는 동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일본 측 협력 파트너인 J사(社)가 자기명의로 일본특허청에 출원하는데 동의했다. 이후 일본에서 동 제품 판매와 관련한 이런 때문에 일본에서 의장권을 획득한 J사(社)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S사(社) 제품의 일본 수출이 무산됨으로써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S사(社)는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면서도 일본 내에서의 지재권 확보에 소홀하였고, 일본에서 권리를 가진 J사(社)와 일본수출과 관련한 지재권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된 시장으로 고려하였던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도산 위기를 맞았다. 그러므로 수출을 염두에 두었다면 국외 특허권 획득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